



임실 신덕면 행복보장협의체, 사랑의 반찬 나눔

신덕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남용, 김운배)가 지난 19일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5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생활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반찬을 지원하는 신덕면 행복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사업으로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3월 첫 반찬 나눔은 오랜 김장 김치에 입맛이 무뎠던 어르신들에게 갖 담은 무김치와 물김치로 입맛을 돋우어 주고자 정성스럽게 만들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운배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반찬을 만들고 어르신 댁을 방문하니 따뜻한 마음이 마을 전체로 번지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보절면, 육군 35사단과 작은 도서관 개관 협의

남원시 보절면 행정복지센터는 20일, 육군 35사단과 보절면 기초 거점센터 작은 도서관 개관을 위해 협의했다.

35사단은 보절면은 2001년 12월 상생 관계 유지 합의 체결 이래 보절면민들을 위해 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주민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주민들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었다.

이에 지난 3월 11일 7733부대를 보절면장 및 직능단체 임원들이 방문해 보절면 기초 거점센터의 작은 도서관 개관 어려움을 토로, 지난 20일 35사단 작전과장 및 라이온스협회 관계자 등이 보절면 기초 거점센터의 어려움을 협의하기 위해 보절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작은 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도서 구입 및 기증에 총력을 다해 항상 고마운 주민들을 위해 힘써보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백산면, 경로당 운영 · 활성화 교육

김제시 백산면(면장 최미화)은 지난 19일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경로당회장 및 총무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운영관리와 활성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동네어르신들의 여가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보조금집행 및 정산기준,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 집행요령에 대해 실시됐다.

/김제=곽도태 기자

농업 무사안녕 · 풍년 농사 기원

진안군 농민회, 영농발대식 갖고 농민 기본권 확대 논의 · 고사 등 진행

진안군 농민회(회장 박시진)는 20일 부귀면 다목적구장에서 한 해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영농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영농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농전북도연맹 황안택 의장과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전문태 도의원, 농협 조합장, 농업인 등이 참석해 농민의 기본권 확대와 농업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고 토론했다.

영농발대식은 풍년을 기원하는 풍물 공연으로 시작했으며 진안군 농민회 박시진 회장의 대회사, 내민들의 격려사 및 축사 등 기념식과 풍년기원 고사를 통해 농업의 무사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또한 농민회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영농준비 강화와 농민기본법 제정,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박시진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 한해 자연재해 없는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농촌인력 문제 해결과 깨끗한



진안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 농민회에서 농촌일손지원센터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 등 우리 진안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잘사는 진안·잘사는 농업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남원농기센터 · 농업인단체협의회, 풍년기원제 거행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시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성철)와 한 해 농사의 풍년과 농업인의 안녕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를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 춘분인 20일 남원시 사직단에서 거행했다.

이번 풍년기원제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4년 만에 재개된 되기도 하였지만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시는 사직단에서 거행되어 보다 뜻깊은 행사였으며, 사직단은 일제 강점기 때 훼손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지방 사직단으로 규모 면에서도 손꼽히는 남원의 문화유산이다.

예로부터 농업을 천지대본으로 여겨 왔던 우리 조상들은 풍년기원제를 토신과 곡신에게 오곡이 풍년되고 육옥이 살찌는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제향을 올렸으며, 이날 풍년기원제에는 많은 농업인들이 참석해 올 한해 남원농업의 풍년과 발전을 기원했다.

농업기술센터 고인배 소장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공무원노조 순창군지부, 새내기 공무원 소통 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창군지부(지부장 조민영)는 새내기 공무원 30명과 김영식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순창발효관 광재단 회의실에서 소통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통 교육은 새내기 공무원과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새내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창군지부는 이번 소통교육을 통해 M세대 공무원의 애로사항과 공무원노조에 바라는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식 부군수는 "새내기 공무원 분들의 행복한 공직생활을 위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보이스포싱 예방직원 감사장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보이스포싱 고객의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일 순창경찰서(서장 윤상현)로부터 직접 감사장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지난 1월 31일 순창군 인계면에 거주하는 A(78)씨는 보이스포싱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영업점에 방문하여 정기에금과 청약통장 해지를 요청했고, 이에 창구 직원은 A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자금사용처를 묻자 황실수술 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포싱 임을 직감하고 인근 남계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보이스포싱을 예방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이에 윤상현 순창경찰서장은 "지역 대표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직원의 적극적인 조치로 보이스포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 하는 등 보이스포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군 설천면발전회, 노인종합복지관 물품 후원

무주군 설천면발전회(회장 최병용)는 취약노인들의 먹거리를 지원하여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찹쌀 231kg 및 사골곰탕 693팩을 무주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무주군 설천면발전회(회장 최병용)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취약노인 대상자의 밥상이 풍성해지길 기대해오며,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보람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 안내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불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자동화산소화기와 소공간용 소화용구, 아크차단기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화재초기진화에 효과적인 설비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분전반·배전반 등 소공간 내에 설치하며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소화하는 설비다. 패드형과 소화기형, 로프형 등이 있다.

아크차단기는 전선의 절연 파괴와 노화현상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아크(전기불꽃)를 감지해 즉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전기 안전장치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사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86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6-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익산지사 658-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385  
순창지사 66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67  
장수지사 010-38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